

바오로에게 계시된 진리에 관한 의미론적 분석

염 철 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학 교수)

목 차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신비, 계시와 진리 문제 |
| II. 바오로의 진리 개념 | 1. 신비와 진리의 보편성과 차별성 |
| III. 진리와 동의 관계의 표현들 | 2. 계시와 진리의 시간성과 영원성 |
| 1. 지식과 지혜 | 3. 은총과 믿음을 통한 진리 수용 |
| 2. 하느님의 뜻과 말씀 | 4. 진리의 절대성과 표현의 상보성 |
| 3. 의로움 | V. 나가는 말 |
| 4. 복음 | |

국문 초록

바오로 서간에서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를 지시하며, 지식, 지혜, (하느님의) 뜻, 말씀, 복음, 의로움과 동의 관계에 있다. 이 어휘들은 모두 진리와 동의어로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를 의미하는데, 진리는 하느님의 계획이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점에 강조점을 두는 표현이다. 이 진리는 창조 이전부터 종말 이후와 관련된 모든 이를 위한 하느님의 영원한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영원성을 지닌다. 하지만 진리는 신비에 감추어져 있으며 역사 안에서 계시를 통하여 계속 드러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택받은 믿는 이들에게만 드러나는 것이

* 편집자 주: 본고는 본대학 신학연구소가 주최한 제18회 학술발표회(2015.11.5)에서 발표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으로, 2015년도 본대학 교비연구비 지원을 받음.

기에 차별성과 시간성을 지닌다. 이로 인해 진리의 보편성과 영원성이 훼손되는 듯 보이나, 이는 진리가 인간에게 파악되는 과정에서 드러내는 특성일 뿐이다. 곧 진리는 하느님과 관련되어 있기에 보편성, 영원성 등을 지니지만, 인간이 진리를 파악하는 작업은 언제나 차별성과 시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바오로 서간에서의 진리 개념으로는 구약 성경의 에메트라는 개념을 발견할 수 있다. 곧 진리는 하느님이 당신의 의로움으로 인해 당신의 계획과 약속에 충실한 모습을 표현하는데 사용되는 표현이며, 동시에 하느님의 약속에 충실한 인간의 충실함을 표현하는데 사용되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바오로 진리관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바오로에게 이것이 진리의 절대적 기준이다. 바오로는 복음 선포라는 목적을 위해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이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기만 한다면 유연한 태도를 취한다. 이로 인해 생겨나는 진리에 대한 다양한 표현과 해석은 서로 상보적 역할을 하며, 이는 절대적 진리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주제어: 진리, 계시, 믿음, 의로움, 바오로

I. 들어가는 말

신약 성경에서 진리는 단순한 논리적 참이나, 사물과 지성의 일치를 뜻하는 일반적인 진리 개념을 넘어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으로’ 이루어졌음을 함축하는 표현으로,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진리로 여긴다.¹⁾ 이번 학술 발표회 주제로 제시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요한 8,32)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 곧 해방과 구원으로 이끌어 준다는 말로 해석할 수 있다(요한 8,36 참조). 이런 진리관은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요한 복음과 바오로 서간에 잘 나타나

1) 논리적 진리 개념, 인식론적 진리 개념, 지식의 확실성 등 진리에 관한 다양한 해석학적 문제는 제17회 학술발표회(2014.11.7)에서 발표된 박병준, “‘진리’ 이해의 문제에 대한 오늘날의 해석학적 흐름”, 『神學展望』 187, 2014, 2-35 참조.

는데, 본고는 바오로가 계시를 통해 알게 되었다고 전하는 진리에 관한 의미론적 연구다.

사실, 진리에 대한 탐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져왔다. ‘다양한 종교가 함께 공존하는 한국 사회 안에서 그리스도교적 진리의 절대성과 보편성²⁾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는 특별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 왔다.³⁾ 게다가, 최근 들어 IS 등과 같이 자신들만이 진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진리를 바탕으로 다른 종교에 폭력을 가하는 이들을 마주하며, “진리가 무엇이오?”(요한 18,38)라는 빌라도의 질문이 새삼스럽게 부각되고 있다. 지난 학술발표회에서도 이런 분위기 안에서 진리에 관한 연구 발표들이 있었다.

본고는 시각을 조금 바꾸어 진리라는 개념 자체에 관한 관심에서 벗어나, 바오로가 무엇을 두고 진리라고 표현하는지를 탐색하고자 한다. 왜냐하면 바오로는 진리라는 개념 자체에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두고 참된 진리라고 하는지에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이다. 실제, “진리가 무엇이오?”라는 빌라도의 질문 역시 예수님이 진리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에 관한 질문이 아니라, 무엇을 두고 진리라고 하는지, 무엇이 진리라는 속성을 지닌다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질문이었다.⁴⁾

- 2) 신약 성경에서 진리(ἀλήθεια)는 단수 형태로만 사용되는데, 이는 진리가 절대적이고 유일무이한 속성을 지니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이영현, “요한복음서의 진리 개념에 대한 성서적 고찰”, 『神學展望』 146, 2004, 2-21 참조.
- 3) 참조: 김형호, “진리의 객관화를 거부한 예수”, 『기독교 사상』 20, 1976, 44-48; 심상태, 『익명의 그리스도인: 칼 라너 학설의 비판적 연구』, 성바오로출판사, 1985; P.F. 니터,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변선환 역, 한국신학연구소, 1986; K. Gloy, “하나인 진리와 다수의 진리 이론들”, 『가톨릭 대학 논문집』 13, 신교선 역, 1987, 179-203; 심상태, “그리스도 진리의 보편성과 역사성”, 『가톨릭 신학과 사상』 1, 1989, 22-55; 정재현, “진리와 해석: 신앙의 진정성을 향하여”, 『조직신학논총』 3, 1998, 88-102; 이길용, “종교연구에 있어서 진리의 문제: 종교학과 종교철학”, 『기독교 사상』 557, 2005, 228-239; 알랭 바디우, 『사도 바울: ‘제국’에 맞서는 보편주의 윤리를 찾아서』, 현성환 역, 새물결, 2008.
- 4) 예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고 말하는데, 빌라도는 정관사 없는 ἀλήθεια를 써서 “τί ἐστιν ἀλήθεια;”라고 질문한다. 여기서 ἀλήθεια 앞에 정관사가 없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ἀλήθεια는 문장의 주어가 아니라 τί에 관한 서술어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이 문장은

바오로가 진리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무엇을 두고 진리라고 여기며, 그것을 왜 진리라고 여기는지, 또 그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한 탐색은 오늘날 그리스도교가 무엇을 진리로 여기며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분명히 드러내어 줄 것이다.

II. 바오로의 진리 개념

신약 성경에서 진리를 뜻하는 그리스어는 ἀλήθεια이다. 이 어휘는 본래 ‘감추어져 있지 않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⁵⁾ 번역에서 언제나 제기되는 문제이지만, 동일한 어휘라 하더라도 시대나 문화에 따라 각기 다른 의미를 지닐 수도 있기 때문에, 바오로 서간들에서 진리가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휘들이 사용되는 문맥을 모두 확인할 수밖에 없다.⁶⁾

바오로의 친서나 제2바오로 서간 구분 없이 골고루 사용되는 진리 관련 어휘들, 곧 ἀλήθεια, ἀληθεύω, ἀληθής, ἀληθινός을 살펴보면,⁷⁾ 바오로가 말하는 진리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그것이 이루어

“무엇이 진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가?”라는 의미로 풀이할 수 있다. 곧 “진리가 무엇이요?”라는 질문은 진리라는 개념에 관한 철학적 질문이 아니라는 말이다.

- 5) R. Bultmann, “ἀλήθεια, ἀληθής, ἀληθινός, ἀληθεύω”, *Theological Dictionary of the New Testament*(이하 TDNT) I, 238 참조.
- 6) 성경 연구에서는 그리스어의 진리 개념과 히브리어 진리 개념을 대비시키는 방식으로 성경 저자들이 어떤 개념들을 활용하는지에 대해 개괄적으로 다루어 왔다. A. Thiselton, “Truth”,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3, ed. C. Brown, Carlisle: Paternoster, 1992, 874-875 참조; 하지만 진리가 정확히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보려면, 해당 어휘가 사용되는 문맥들을 일일이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본고는 바오로 서간에 나오는 진리의 용례를 모두 확인하고, 거기서 모든 논의를 출발한다.
- 7) 여기서는 바오로 서간 13권 전체를 대상으로 어휘들을 조사하였다. 학자들은 바오로의 친서 7권과 제2바오로 서간 6권을 구분한다. 왜냐하면 바오로가 즐겨 사용하는 어휘나 신학적 주제들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본고에서 조사할 어휘 가운데 하나인 ‘복음’(εὐαγγέλιον)과 ‘복음을 전하다’(εὐαγγελίζω)의 경우 바오로 친서에는 각각 60번, 21번에 걸쳐 사용되지만, 제2바오로 서간에는 2번, 12번 밖에 사용되지 않는다. P. Beaudé, “L’Evangile de paul”, *Cahiers Evangile: Qu’est-ce que*

지는 구원 역사 전체를 의미한다.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는 창조 원리(로마 1,25 참조), 하느님의 심판(로마 2,2 참조)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통한 구속과 믿음을 통한 구원이 모두 포함된다(참조: 로마 1,16-17; 3,19-31; 15,8 등). 바오로 서간, 특히 로마서는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 전체가 진리, 곧 참된 것이라고 말한다. 곧 하느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참으로 이루어진다는 말이다(로마 15,8-9 참조). 바오로는 이를 “그리스도의 진리”(2코린 11,10)라고도 표현하는데, “그리스도의 진리”라는 말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난 진리라는 의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모두 포괄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오로는 진리가 예수 안에 담겨 있으며 우리 모두 그 진리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해야 한다고 말한다(에페 4,21 참조).⁸⁾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이루어졌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받아들이며,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되는 것들을 모두 행해야 한다는 말이다. 바오로

l'évangile? 96, Éditions du Cerf, 1996, 11 참조; 하지만 본고가 13권 전체를 모두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오로가 비서를 활용하는 로마 헬레니즘 시대의 편지 작성 방식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J. Murphy-O'Connor, *Paul the Letter-Writer: His World, His Options, His Skills*,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5, 8-33 참조. 필레몬서를 제외하고(필레 19 참조), 바오로의 서간은 대부분 비서의 손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긴 서간의 경우 바오로는 자신이 직접 적은 부분에 관해 언급하기도 하는데(참조: 1코린 16,21; 갈라 6,11), 이 대목들을 보면 나머지 대목은 다른 비서의 손에 의해 저술된 것이 분명하다. 로마서의 경우는 비서 테르티우스가 자신의 이름을 직접 밝히고 있다(로마 16,22 참조). 이렇게 본다면 바오로의 친서와 그렇지 않은 서간은 비서가 서간 저술 과정에 어느 정도 깊숙이 개입하였는지의 문제로 바꾸어 생각할 수도 있다.

- 8) 이를 위해 전치사 *ἐν*이 사용된다(참조: 2코린 7,14; 에페 5,9; 6,14; 콜로 1,6). 이 전치사는 진리를 안팎이 명확히 구분되는 하나의 그릇으로 개념화함으로써 진리인 것과 아닌 것이 명확히 구분되는 것처럼 여기게 만든다. 하지만 인지언어학적 관점에서 이런 범주 구분은 개념 체계 속에서 가능한 것이지만, 실재는 진리와 진리 아닌 것이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한다. 그러면서 비트겐슈타인의 가족 닮음 개념을 활용하여, 진리라는 개념의 원형이 존재하고 그 원형과 가족 닮음의 형태로 가까운 것이 존재할 뿐, 해당 범주에 해당하는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V. Evans, M. Green,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6, 27-53 참조.

는 자신이 그리스도의 진리를 전해 받아 간직하고 있다고 말한다(참조: 2코린 11,10; 12,6). 그러면서 바오로는 교회가 바로 이 진리를 지탱하는 기둥이자 터로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한다(1티모 3,15 참조). 우리는 이 진리를 거스를 수 없으며, 오직 진리를 위해서 살 수 있을 뿐이다(2코린 13,8 참조). 만약 마음이 부패하여지면 진리를 배반하게 되고, 결국 진리를 잃어버릴 것이다(참조: 1티모 6,5; 2티모 2,18; 3,8; 4,4; 티토 1,14).

지금까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바오로 서간에서 진리는 논리적 참을 나타내거나, 말과 실재의 일치라는 차원의 표현이라기보다는 하느님의 신비스러운 구원 계획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기 때문에, 진리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라고 볼 수 있다. 바오로가 말하는 이러한 진리는 인간 이성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은총과 선택을 통하여 주어지는 계시와 믿음을 통해 깨닫게 되는 것인데, 이 점에 관해서는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계속된 논의를 위해 먼저 바오로의 진리 개념 자체에 관하여 좀 더 논의하도록 하자.

앞서 언급한 것처럼 그리스어에서 진리(*ἀλήθεια*)는 감추어져 있지 않고 열려 있음을 의미하며, 대개 거짓된 진술과 반대되는, 사건의 참된 상태를 의미하거나, 절대적인 의미에서의 실제 존재(*real being*)를 의미한다.⁹⁾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그리스어에서 진리는 인식론적이며, 존재론적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히브리어에서 진리, 곧 ‘에메트’(*אמת*)는 그리스어와 마찬가지로 거짓된 진술과 반대되는, 사건의 참된 상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이 어휘는 확실하고 튼튼한 것, 신뢰하고 믿을 만한 것이라는 본래의 의미에서 잘 볼 수 있듯이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하느님의 충실성과 하느님께 드리는 인간 편에서의 충실성이라는 인격적 속성을 표현하는 데 주로 사용된다. 곧 진리는 당신의 호의를 인간에게 지속적으로 드

9) R. Bultmann, 앞의 책, 238-239 참조.

리내어 주는 ‘하느님의 성실함’(참조: 창세 24,27.49; 탈출 34,6)을 표현하거나,¹⁰⁾ 하느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삶의 성실함을 지칭한다(창세 24,48 참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히브리어의 ‘진리’는 단순한 인식적 차원을 넘어서, 성실하고 지속적이며, 신뢰하고 믿을 만한, 그래서 말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강조된 개념이다.¹¹⁾ 이는 그리스어에서의 진리 개념뿐만 아니라, 20세기 오늘날 현대인들이 떠올리는 진리에 대한 철학적·과학적·윤리적 개념들과도 차이가 난다.¹²⁾ 그래서 70인역 구약 성경은 ‘에메트’를 그리스어로 번역할 때에는 ἀλήθεια로 번역하면서도, 종종 믿음(πίστις)과 의로움(δικαιοσύνη)으로 번역하기도 한다. 바오로의 진리관도 이러한 구약 성경의 진리 개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¹³⁾ 곧 바오로 역시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는 항상 그것이 구체적인 역사 현장에서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특성을 강조한다는 것이다.

III. 진리와 동의 관계의 표현들

진리를 뜻하는 ἀλήθεια, ἀληθεύω, ἀληθής, ἀληθινός의 용례를 모두 살펴보았다고 해서, 바오로의 진리를 모두 파악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언어는 하나의 언어적 체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¹⁴⁾ 해당 어휘의 의미

10) 탈출 34,6-7에서 하느님은 자신이 자비하고 너그러운 하느님임을 드러내면서, 분노에 더디고 자애와 진실이 충만해서, 천대에 이르기까지 자애를 베풀고 죄악과 약행과 잘못을 용서하지만, 죄를 지으면 벌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않는, 그래서 그 죄악을 삼사대에 이르기까지 벌하시는 하느님으로 소개한다. 하느님에 관한 이런 계시 양식은 구약 성경에서 대개 27번에 걸쳐 사용되는데, 하느님에 관한 이런 정의에 관해 주석학자들은 “자애 양식”(formula della grazia)이라고 부른다. G. Barbiero, *Dio di misericordia e di grazia: La rivelazione del volto di Dio in Esodo 32-34*, portalupi editore, 2002, 5 참조.

11) 심상태, “그리스도 진리의 보편성과 역사성”, 27 참조.

12) P. Brown, “Religion and Truth”, *Perspective* 13, 1972, 202-203 참조.

13) R. Bultmann, 앞의 책, 238 참조.

14) 구조주의적 견해에 따르면 언어는 하나의 체계를 지니고 있으며, 언어 체계에 속하

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당 어휘와 동의 관계에 놓여 있는 동의어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의미적 차원에서 해당 어휘들을 살펴볼 때 매우 중요한 요소다. 이 때문에 본고는 바로 서간 안에서 진리와 관련된 어휘들의 목록을 작성하였는데, 그 결과 지식(ἐπίγνωσις, γνῶσις, γινώσκω), 지혜(σοφία), 신비(μυστήριον), (하느님의) 뜻(θελήμα), 말씀(λόγος), 복음(εὐαγγέλιον, εὐαγγελίζω), 정의(δικαιοσύνη, δίκαιος, δικαίω, δικαίωμα, δικαίως), 곧 의로움이라는 표현이 진리와 동의 관계를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¹⁵⁾ 그러면 지금부터 이 어휘들이 각각 어떤 용례로 사용되는지를 살펴보자.

1. 지식과 지혜

사목 서간에는 종종 ‘진리의 지식’(ἐπίγνωσις ἀληθείας)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참조: 1티모 2,4; 2티모 3,7; 티토 1,1), 여기서 진리는 인간이 인식할 수 있는 대상임이 드러난다. 인식적 차원에서 진리는

는 모든 요소들은 서로 연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한 가지 요소의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한다면, 유사한 가치를 지닌 다른 어휘들과 반드시 비교해 보아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쉬르는 다음과 같이 이야기한다. “한 언어 안에서는 유사한 개념을 표현하는 모든 어휘는 서로를 한정한다. 곧 redouter, craindre, avoir peur 같은 동의어들은 서로를 대조할 때 비로소 고유한 (의미)가치를 가진다”: F. de Saussure,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Édition critique préparée par Tullio de Mauro*, Éditions Payot & Rivages, 1995⁴, 158-162 참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텍스트 내의 어떤 요소가 다른 요소들과 어떤 의미적 관계를 지니는지에 관해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W. Egger, P. Wick, *Methodenlehre zum Neuen Testament*, Freiburg: Herder, 2011⁶, 140-148 참조; 의미론적 연구 방법에서는 이런 관계들을 확인하기 위해 어휘들의 목록을 작성하여, 어휘들 간의 의미적 관계들을 파악한다.

- 15) 소쉬르는 체스 비유를 통해서 기호들 간의 관계를 설명하는데, 체스 중에 기사 말이 부러지거나 분실되었을 때, 기사 말을 전혀 다른 가치를 지닌 말로 대체하더라도, 상호 간의 동의가 있다면 해당 말을 기사 말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 하지만 그 말이 다른 말들과 구분은 되어야지만 기사 말로서 기능을 한다고 설명하면서 언어 역시 이런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지적한다. F. de Saussure, 앞의 책, 153-154 참조. 이 견해를 기반으로 해당 어휘들을 살펴보면, 해당 어휘들이 본래는 각기 다른 가치들을 지니고 있지만, 바로로가 이 어휘들을 사용하는 문맥 안에서는 진리와 동의 관계의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다.

지식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그리스어에서 지식은 어떤 대상에 관한 지적인 이해를 의미한다. 특히 ἐπίγνωσις, γνῶσις, γινώσκω가 뜻하는 지식은 감각적 지각을 의미하는 αἴσθησις와 달리, 정신 혹은 말과 관련된 지식을 의미하며,¹⁶⁾ 어떤 것에 대한 의견을 의미하는 δοκέω나 δοξάζω와 달리 존재나 진리와 같이 실제 있는 바 그대로의 것을 알고 있다는 의미로 사용된다. 의견의 경우는 틀릴 수도 있지만, 지식은 틀린 것이 아닌 참된 것에 관한 것이다.¹⁷⁾ 이 점은 바오로 서간에서 동사 γινώσκω가 목적으로 취하는 것이 모두 참된 것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음에서 분명히 드러난다. 곧 지식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하느님”(로마 1,21; 1코린 1,21; 갈라 4,9), (하느님의) “뜻”(로마 2,18), “주님의 생각”(로마 11,34; 1코린 2,16¹⁸⁾), “하느님의 생각[것들]”(τὰ τοῦ θεοῦ, 1코린 2,11), “지혜”(1코린 2,8), “평화의 길”(로마 3,17), “그리스도”(2코린 5,16), “그리스도의 은총”(2코린 8,9), “그리스도의 사랑”(에페 3,19),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업적과 복음 선포 내용들(참조: 로마 6,6; 갈라 3,7; 에페 5,5; 필리 1,12; 3,10; 2티모 3,1)이다. 이렇게 볼 때 바오로는 ‘알’, ‘지식’을 참된 것, 곧 진리와 관련된 지식을 얻는 것이라는 의미로 주로 사용한다고 말할 수 있다.

γινώσκω와 마찬가지로 명사형 ἐπίγνωσις, γνῶσις도 “하느님의 지식”(로마 11,33)¹⁹⁾으로 인간이 얻을 수 있는 올바른 지식(참조: 로마

16) 필리 1,9에서 바오로는 αἴσθησις와 ἐπίγνωσις를 함께 사용한다. δοκέω와 δοξάζω에서 나오는 δοξά, 곧 의견은 감각적 지각을 의미하는 αἴσθησις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변화 가능한, 곧 확정적이지 않은 견해로 이해된다. P. Ciholas, “Knowledge and Faith: Pauline Platonisms and the Spiritualization of Reality”,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3, 1976, 194-195 참조.

17) R. Bultmann, “γινώσκω, γνῶσις, ἐπιγινώσκω, ἐπίγνωσις, καταγινώσκω, ἀκατάγνωστος, προγινώσκω, πρόγνωσις, συγγνώμη, γνώμη, γνωρίζω, γνωστός”, *TDNT* I, 689-690 참조.

18) 새 번역 성경은 νοῦς κυρίου를 로마 1,21에서는 “주님의 생각”으로, 1코린 2,16에서는 “주님의 마음”으로 각각 달리 번역하고 있는데 바오로 서간에서 νοῦς는 대개 사람들의 이성, 생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느님과 관련해서도 “생각”으로 통일하는 것이 좋겠다. 1코린 2,16에서는 “그리스도의 생각”이라는 표현도 나오는데, “생각” 역시 진리와 동의 관계에 있는 표현이다. 하지만 이 표현은 여기서 단 세 번 사용되는 표현이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자세히 다루지 않는다.

19) 여기서 ‘하느님의’를 주어적 소유격으로 해석할 경우 하느님이 가진 지식이 되고,

15,14; 1코린 1,5; 8,1.7.10.11; 13,2.8; 14,6),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참조: 2코린 2,14; 필리 3,19), 하나님의 영광의 지식(2코린 4,6 참조)을 표현할 때 주로 사용된다. 이 지식은 인간의 이성적 능력을 통해 파악되는 것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주어진다. 이렇게 보면 지식이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에는 진리와 동의어로 사용된다고 말할 수 있다. 하지만 지식은 진리 자체보다는 그 진리를 인식한다는 인식적 차원에 좀 더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참조: 1티모 2,4.25; 3,7; 티토 1,1).

그런데 바오로는 자신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결국 사람을 교만하게 만들 수도 있다고 경고한다(1코린 8,1 참조). 또한 이 지식에는 죄와 같은 추상적 개념에 관한 지식(로마 3,20 참조)도 포함된다. 이런 점에서 인간은 잘못된 지식을 가질 수도 있고, 또 지식을 잘못 사용해 교만해질 수도 있다. 이와 달리 진리는 참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지식과 의미적 차이를 보인다.

인식적 의미가 강한 지식과 달리 형용사 σοφός에서 유래한 명사 지혜(σοφία)는 진리와 동의어로 사용되기도 한다.²⁰⁾ 예를 들면 바오로는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지혜”(1코린 1,24; 2,7), 혹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온 지혜’(1코린 1,30 참조)라고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고 말한다(골로 2,3 참조). 이러한 지혜의 말씀은 성령에 의해 주어진다(1코린 12,8 참조). 이런 지혜는 대개 도구적 의미로 사용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어 하나님을 알게 하고(참조: 에페 1,17; 콜로 1,9),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매우 다양한 지혜가 알려지게 한다(에페 3,10

목적어적 소유격으로 해석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된다. 바오로는 대개 지식을 인간 편에서 하나님과 관련된 진리를 아는 것이라는 표현에 사용한다. 이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지식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하지만 이 대목은 하나님 편에서의 풍요와 지혜와 지식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바오로가 하나님의 앞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는 대개 우리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참조: 1코린 3,20; 8,3; 갈라 4,9; 2티모 2,19), 하나님의 지식은 결국 인간과 관련된 당신의 계획이나 뜻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20) U. Wilckens, “σοφία, σοφός, σοφίζω”, *TDNT* VII, 467 참조.

참조). 우리 역시 지혜를 통해 서로를 가르쳐야 한다(참조: 콜로 1,28; 3,16).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모두 진리와 동의 관계에 있지만, 인간 편에서 활용할 수 있는 도구적 의미가 강조되고 있다.

물론 바오로는 지혜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대개 세속적인 의미, 곧 그리스인들이 추구하는 사람의 지혜를 지칭하는 데 주로 사용한다(참조: 1코린 1,17.19.20.21.22; 2,1.4.5.6.13; 3,19; 2코린 1,12). 이 점은 콜로 4,5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여기서 바오로는 외인을 향해서는 이런 세상적인 지혜를 사용하여 시간을 아낄 것을 권한다.²¹⁾

2. 하느님의 뜻과 말씀

θέλω와 θέλημα는 본래 어떤 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이나 원의 등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 어휘다. 진리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구원 역사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하느님의 계획이나 원의를 드러내는 θέλω와 θέλημα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실제, 신약 성경에서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절대적이고 완전한 의지로 지상에서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참된 속성을 지닌 진리다.²²⁾ 이런 의

21) 본래, 그리스어에서 지혜는 특정한 수공 기술이나 어떤 분야에서 숙련된 능력을 의미했다. 이런 능력은 본래 신이 가지고 있던 능력으로 인간은 신에게서 그 능력을 받아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이해했다. 이것은 대개 삶과 관련된 탁월한 능력과 관계되어 있었는데, 이 말이 점점 덕과 선과 연결되며,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덕과 선에 있어서 뛰어난 위치에 있는 이들, 혹은 설득력이나 지식에서 뛰어난 이들을 지칭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같은 책, 468-470 참조; 바오로가 세속적인 지혜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에는 이런 세속적 능력을 의미한다. 하지만, 바오로는 진리와 관련해서 이 어휘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실제 그리스어에서도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거치면서 지혜가 존재적 진리 자체를 지시하는 데 사용되기도 한다. 같은 책, 471-472 참조;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어의 지혜는 구약 성경의 지혜 개념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구약 성경의 지혜 역시 본래는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얻게 되는 삶의 원리와 원칙 등을 표현하는 말이었는데, 유배를 거치면서 세상의 원리 원칙이 결국 하느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견해와 맞물리면서 삶에 질서를 부여하는 하느님의 계시적 진리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E. Zenger,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1995, 224-227 참조.

미에서 하느님의 뜻은 진리와 동의 관계에 있다. 그렇다면 바오로가 말하는 하느님의 뜻, 곧 반드시 이루어지는 진리는 무엇인가?

하느님은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가 되어(에페 1,5 참조), 거룩해지며(1테살 4,3 참조),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기를 바라셨기 때문에(1테살 5,18 참조),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 예수로 하여금 자기 몸을 바치기를 바랐다(갈라 1,4 참조). 그리고 모두가 구원을 받아 이 진리를 깨닫게 되기를 바란다(1티모 2,4 참조). 하느님은 당신 뜻에 담겨 있는 비밀을 알려주었는데,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페 1,9)에 따른 것이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하며(참조: 에페 5,17; 콜로 1,9), 마음으로 그 뜻을 실행에 옮기고(에페 6,6 참조), 그 뜻에 대해 확신을 가지고 굳건하게 살아야 한다(콜로 4,12 참조). 또한, 하느님은 그리스도의 신비가 다른 민족들 안에도 풍성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모든 성도들이 알게 되기를 바라셨다(콜로 1,27 참조).

이렇게 보면, 하느님의 뜻은 앞서 살펴본 진리와 동일한 내용, 곧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진리와 하느님의 뜻이 구분되는 특징을 살펴보면, 하느님의 뜻은 계획과 관련된 하느님의 의지적 측면이 강조된다면, 진리는 그 계획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진다는, 곧 역사한다는 점이 강조되고 있다.²³⁾

이외에도 바오로는 인간의 몸이 여러 지체로 되어 있는 것도 하느님의 뜻에 따른 것이고(1코린 12,18 참조), 세상 모든 것이 각각의 형태로 만들어진 것 또한 하느님의 뜻에 따른 것이라고 말한다(1코린 15,38 참조). 게다가 자신이 사도로 불림을 받은 것도 하느님의

22) G. Schrenk, “θέλω, θέλημα, θέλησις”, *TDNT* III, 47 참조.

23) 이러한 하느님의 뜻은 선택과 예정(προορίζω)과 연결되는데, 바오로는 하느님의 뜻, 곧 계획이 이미 세상 창조 이전에 계획된 것이었다고 여긴다(참조: 로마 8,29,30; 1코린 2,7; 에페 1,5,11). 그리고 하느님은 당신이 원하는 이들에게는 자비를 베푸시지만, 원하지 않는 이는 완고하게 하여(로마 9,18 참조), 당신의 진노를 보이시어 당신의 힘을 알리고자 하시는 분이시다(로마 9,22 참조).

뜻에 따른 것이고(참조: 1코린 1,1; 2코린 1,1; 에페 1,1; 콜로 1,1; 2티모 1,1), 자신 안에, 더 나아가 우리 모두에게 원의를 일으키시는 분도 하느님이라고 말한다(필리 2,13 참조). 이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행하든 하느님의 뜻에 따라야 한다(참조: 로마 15,32; 에페 6,6). 이렇게 볼 때 하느님의 뜻은 예수의 제자가 된 이들의 윤리적 실천과도 밀접하게 관련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하느님의 뜻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것이 ‘말’, 곧 로고스(λόγος)다. 이 어휘는 은폐되어 있던 것을 드러나게 하는 ‘은폐하지 않음’, 곧 ‘진실을 말하다’(ἀληθεύω)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참조: 갈라 4,16; 에페 4,15).²⁴⁾ 이런 차원에서 ‘말’은 ‘진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특히 바오로 서간 안에서 이 어휘는 하느님의 계획을 약속의 형태로 전하는 ‘하느님의 말씀’, 구원과 관련된 기쁜 소식인 ‘진리의 말씀’을 지칭할 때 주로 사용되며(참조: 로마 3,4; 9,6.9.28; 2코린 2,17; 4,2; 에페 1,13; 콜로 1,5; 1테살 2,13), 하느님은 당신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으로 소개된다(참조: 로마 9,28; 1코린 15,54). 하느님은 우리에게 “복음의 신비”가 담겨 있는 말씀을 주셨으며(에페 6,19),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계명도 말해 주었다(로마 13,9 참조).²⁵⁾ 이렇게 보면 말씀이라는 어휘는 하느님의 뜻, 곧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그 진리가 어떤 수단으로 전달되는지를 강조한다고 말할 수 있다.

바오로는 또한 하느님이 “화해의 말씀”(2코린 5,19)을 우리들에게 맡겼는데, 우리 모두 그 말씀을 전하는 사도로 하느님과 화해해야

24) 로고스는 은폐되어 있는 상태의 존재를 끄집어 내어서 은폐되지 않는 상태로 드러내 주는 행위 및 그 결과, 곧 은폐되지 않은 진리를 뜻한다. 참조: 마르틴 하이데거, 『존재론: 현상실성의 해석학』, 이기상·김재철 역, 서광사, 2002, 32; 박병준, 앞의 책, 14-15.

25) 바오로는 예수의 가르침과 마찬가지로 모든 계명이 하나의 말 안에서 완성되었다고 말하는데, 바로 이웃 사랑의 계명이다(갈라 5,14 참조).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율법, 곧 말씀을 배우기를 권한다(참조: 갈라 6,6; 콜로 3,16; 1테살 4,15). 우리는 이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고(1티모 4,5 참조), 형제를 서로 깨우쳐 줄 뿐만 아니라, 양육된다(1티모 4,6 참조). 이렇게 되면, 말씀은 사람들이 깨달아 알고 지켜야 할 진리의 인식적이고, 실천적인 측면의 의미로도 사용된다.

한다고 권한다(2코린 5,20 참조). 그러면서 바오로는 하느님이 맡기신 화해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데, 바로 “죄를 모르시는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죄로 만드시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되게 하셨”(2코린 5,21; 참조: 1티모 1,15)다는 것이다. 결국 하느님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구원 역사와 그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의 의로움, 곧 진리를 그 내용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의로움

‘정의’로도 번역되는 의로움은 다소 법적 용어로 들리기 때문에, 진리, 하느님의 뜻, 말씀과는 관련 없는 표현처럼 여겨진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로움은 진리와 동떨어진 개념이 아니다. 왜냐하면 하느님의 뜻, 말씀, 진리에서 다루어진 바들이 모두 하느님의 의로움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바 있지만, 70인역 구약 성경은 에메트를 종종 의로움($\delta\iota\kappa\alpha\iota\sigma\acute{\upsilon}\nu\eta$, $\delta\acute{\iota}\kappa\alpha\iota\omicron\varsigma$, $\delta\iota\kappa\alpha\acute{\iota}\omega\mu\alpha$)으로 번역한다(참조: 탈출 18,21; 시편 15,2; 예제 18,8,9; 다니 8,12; 즈카 7,9).²⁶⁾ 또한 로마서에서 진리에 반대되는 표현으로 사용되는 “거짓”(ψεύδος, ψεύσμα, ψεύδομαι: 로마 1,25; 3,7; 9,1)과 “불의”(ἀδικία: 로마 1,18; 2,8; 3,5; 6,13)에서 불의는 의로움과 반대어다. 이렇게 보면, 의로움과 진리는 불의의 반대어라는 점에서 서로 동의 관계에 있다. 이 점은 1코린 13,6의 병행구에서 분명히 확인된다. “사랑은 불의[ἀδικία]에 기뻐하지 않고 진실[ἀλήθεια]을 두고 함께 기뻐합니다.”

물론 의로움과 진리가 동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두 표현이 서로 완전히 일치하는 의미를 지닌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의로움과 관련된 $\delta\iota\kappa\alpha\iota\sigma\acute{\upsilon}\nu\eta$, $\delta\acute{\iota}\kappa\alpha\iota\omicron\varsigma$, $\delta\iota\kappa\alpha\acute{\iota}\omega$, $\delta\iota\kappa\alpha\acute{\iota}\omega\mu\alpha$, $\delta\iota\kappa\alpha\acute{\iota}\omega\varsigma$ 가

26) 시편 19,10의 경우는 주님의 법규가 의로운 이유는 그것이 진실하기 때문이라고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곧, 주님의 법규는 반드시 그 법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로운 것이라는 말이다. 실제로, 시편에서는 진리와 의로움이 종종 함께 병행으로 언급되곤 한다(참조: 시편 85,12; 119,142 등).

바오로 서간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먼저 의로움이라는 용어는 로마서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다(110회). 특히 로마 1,16-17은 복음 안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된다고 밝히는데, 이 문장이 로마서 교의 단원(1,18-11,36)의 주제 제안(propositio)이라고 볼 때,²⁷⁾ 로마서 전체가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시된 하느님의 의로움에 관하여 다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이 구절에서 바오로가 계시를 통해 알게 된 진리의 내용이 바로 하느님의 의로움이다.

여기서 하느님의 의로움이란 표현은 하느님의 의로운 속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하느님이 왜 당신의 계약에 충실한지가 여기서 드러난다.²⁸⁾ 사실 구약 성경 안에서 의로운 사람은 하느님의 계명과

27) 로마 그리스의 설득 담론(deliberative discourse)에서 주제 제안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설득 담론은 먼저 주제 제안(propositio)과 논증(probatio)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바오로 서간을 수사학적으로 분석할 때, 서간 전체의 주제가 제안되는 단락, 혹은 작은 단위의 단락에서 주제가 제안되는 단락을 찾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서간의 주제들이 제안되는 단락들만 찾아보면, 서간 전체의 목차를 한 눈에 볼 수 있기 때문이다. J. Murphy-O'Connor, 앞의 책, 83-86 참조; 이와 관련해서 학자들은 로마 1,16-17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 제안에 해당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참조: G. Kennedy,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through Rhetorical Criticism*,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4, 153-154; R. Jewett, "Following the Argument of Romans", *Word & World* 6, 1986, 382-389; J. Fitzmyer, *Romans*, The Anchor Bible 33, New York: Doubleday, 1993, 253; 김영남, 『로마서』, 성서와함께 총서 신약 4, 성서와함께, 2014, 78.

28) 하느님의 의로움은 문법적으로 '하느님의'(θεοῦ)라는 소유격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각기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다. 만약 이것이 주어적인 의미나 소유의 의미를 나타내는 소유격이라고 한다면, 하느님의 의로움은 하느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 되고, 목적어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소유격으로 보면 하느님 앞에서 인간이 가져야 하는 의로움을 의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출처와 관련된 의미를 지니는 소유격으로 보면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이라고 볼 수 있다. 김영남, 앞의 책, 86-87 참조; 이 점에 관하여 Fitzmyer는 이 구절의 하느님의 의로움이 앞 구절의 하느님의 힘과 다음 구절의 하느님의 진노와 대구를 이룬다는 점에서 하느님의 속성을 나타내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본다. 실제, 로마 3,26에서 바오로의 논증이 절정에 달하게 되는데, 여기서 바오로는 "하느님께서 당신의 의로움을 보여 주시어", "당신께서 의로우신 분이며 또 예수님을 믿는 이를 의롭게 하시는 분임을 드러내십시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하느님이 의로움의 속성을 지니고 있음이 분명히 드러난다. J. Fitzmyer, 앞의 책, 262; Fitzmyer도 지적하듯이 의로움이 하느님의 진리(로마 3,7)와 동의 관계에 있다는 점은 본고에서도 충분히 확인된다.

율법에 충실한 사람이다. 하느님도 의로운 분이기에 때문에 당신의 계획과 약속에 충실한 분이시다.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이 드러난다는 것은 바로 하느님이 당신 약속을 이루신다는 것, 곧 하느님의 약속이 진리로 드러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은 로마 3,5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다. 로마 3,5은 우리의 불의함으로 인해 하느님의 진노가 내리게 되었다고 말하는데, 우리 모두가 하느님과 맺은 계약으로 주어진 율법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은 진노와 심판으로 드러날 수 있다. 하지만 하느님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듯이 당신 계약에 충실한 분이시고,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율법을 기준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드러내지 않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당신의 의로움을 계시하신다. 곧 인간을 당신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하시려고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는 바에 따라 당신의 의로움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주어지도록 만드신 것이다(참조: 로마 3,22; 갈라 2,21; 5,5; 필리 3,9). 따라서 하느님의 의로움은 이제 율법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통해 드러날 것이며, 여기에는 어떤 차별도 없다. 예수를 믿는 이라면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모두에게나 똑같이 그 의로움이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하느님의 의로움은 그 주어지는 대상에 있어서 보편적 속성을 지닌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덕택에 죄에서 죽고 해방되어 자유를 누림으로써 “의로움의 종”(로마 6,18)²⁹⁾이 되었다. 이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을 하느님께 바치고, “자기 지체를 의로움의 도구로 하느님께 바쳐야 한다”(로마 6,13). 곧 하느님의 종이 되어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가져야 하고(로마 6,16 참조), 이를 통해 모두 성화에 이르러야 한다(로마 6,19 참조). 이런 의미에서 의로움은 종종 인간의 실천적인 측면과도 연

29) 종과 자유는 서로 대조되는 개념인데, 바오로는 이를 통하여 진정한 자유는 의로움의 종이 되는 것임을 드러낸다.

결된다(참조: 2코린 9,10; 필리 1,11).³⁰⁾

4. 복음

바오로는 자신이 전하는 진리를 “구원의 복음”(에페 1,13), “복음의 진리”(갈라 2,5.14; 참조: 콜로 1,5)라고 말한다. 여기서 복음 자체가 진리와 동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곧 “하느님이 당신의 예언자들을 통하여 미리 성경에 약속해 놓으신 것으로, 당신 아드님에 관한 말씀”(로마 1,2)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는 말이다. 복음이 진리라는 명제는 바오로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이다.³¹⁾ 이런 의미에서 바오로 서간에서 복음의 의미를 살펴보는 것은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진리를 이해하는데 필수적이다.

바오로 서간에 나타나는 복음과 관련된 어휘로는 εὐαγγέλιον과 εὐαγγελίζω가 있다. 먼저 동사형 εὐαγγελίζω는 목적어 없이 사용되기도 하지만(참조: 로마 1,15; 15,20; 1코린 1,17; 9,16.18; 15,2; 2코린 10,16; 갈라 1,8.9; 4,13), “좋은 것들”(τὰ ἀγαθὰ, 로마 10,15), “복음”(1코린 15,1; 2코린 11,7; 갈라 1,11), (하느님의) “아드님”(갈라 1,16), “믿음”(갈라

30) 바오로에게 있어서 의로움은 거룩함, 깨끗함과 연결되어 있다. 이 표현들 역시 하느님의 속성에 해당하는데, 바오로는 우리 역시 깨끗해졌고, 거룩해졌으며, 의롭게 되었다고 강조한다(1코린 6,11 참조).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 역시 자주 거룩함과 깨끗함, 곧 의로움을 유지할 것을 강조한다(참조: 1코린 5,9-13; 2코린 6,14-7,1; 9,10). 이러한 생각은 바오로만의 고유한 사상이 아니라, 구약 성경적 시기가 반영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쿠파만 공동체에서도 바오로와 동일한 견해가 발견된다. 이 점에 관해서는 엄철호, “쿠파만 공동체와 바오로”, 『신앙과 삶』 20, 2009, 67-73 참조; 사실, 진리가 자유롭게 한다는 표현은 결국 하느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고, 깨끗해지고, 거룩해지며,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과 동일한 명제를 전달하는 문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바오로의 자유와 동의 관계에 있는 어휘들로는 거룩함(ἅγιος, ἁγιασμός, ἁγιάζω), 깨끗하고 흠 없음(καθαρός, καθαρίζω, ἀπολούω, εἰλικρινής, εἰλικρινεῖα, ἀπόσκοπος), 영광스러움(δοξάζω, δόξα), 새로움(καινότης, καινός, νέος), 기쁨(χαρά), 평화(εἰρήνη), 생명(ζωή, ζάω)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어휘들의 역시 의미적 관점에서 동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31) A. Thiselton, 앞의 책, 884 참조.

1,23), “평화”(에페 2,17), “그리스도의 헤아릴 수 없는 풍요”(에페 3,8), 사람들의 “믿음과 사랑”(1테살 3,6)을 목적어로 갖기도 한다. 이렇게 보면 기쁜 소식으로 선포되는 바는 앞서 언급한 진리, 지식, 지혜, 하나님의 뜻, 말씀 등이 지시하는 바와 동일하다. 이 점은 명사형 εὐαγγέλιον이 사용되는 용례에서 명확히 드러난다. “하나님의 복음”(로마 1,1; 15,16; 2코린 11,7; 1테살 2,2.8.9),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복음”(1티모 1,11), “그리스도의 복음”(로마 15,19; 1코린 9,12; 2코린 2,12; 9,13; 10,14; 갈라 1,7; 1테살 3,2),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2코린 4,4) 등이 그러하다. 여기서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밝혀주신 복음이라는 의미로,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으로 2티모 2,8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십시오. 그분께서는 다윗의 후손으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이 나의 복음입니다”라고 분명히 밝힌다. 바오로는 예수의 부활이 없으면 자신의 복음 선포³²⁾ 전체가 헛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1코린 15,14 참조). 이런 의미에서 바오로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은 예수 부활이라고 말할 수 있다. 여기서 예수 부활은 바오로가 깨달은 진리에서도 핵심 주제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

하지만 바오로는 예수 부활에 관한 가르침에 머물지 않고, 우리 모두 예수를 믿음으로써 의롭게 된다는 것(로마 2,16 참조), 이스라엘은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라는 점(로마 11,28 참조), 다른 민족도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님 안에서 복음을 통하여,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의 지체가 되며 약속의 공동 수혜자가 된다는 것”(에페 3,6) 등도 복음의 내용임을 분명하게 밝힌다. 그리고 복음이 참되다는 사실은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사람들의 숨은 행실들을 심판하시는 그날”(로마 2,16) 온전히 드러날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복음은

32) 복음이라는 어휘와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것으로 복음 선포(κήρυγμα)라는 어휘도 바오로가 즐겨 쓰는 말이다(참조: 로마 16,25; 1코린 1,21; 2,4; 2티모 4,17; 티토 1,3). 이 어휘는 복음을 선포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는 어휘다.

진리를 담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다.

이처럼 복음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예수가 부활하였다는 점과 이를 통해 우리 모두가 의롭게 되고, 구원된다는 점에 집중되고 있다. 복음을 두고 믿는 이는 누구든지 구원해 주는 “하느님의 힘”(로마 1,16)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복음이 전하는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분이 하느님이며, 이 모든 일은 인간 쪽에서 불가능해 보이는 것들로 하느님의 구원 행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부각시켜 준다.

지금까지 복음이라는 어휘에 관해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복음이라는 표현은 내용적 측면에서 바오로가 이야기하는 진리와 동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복음은 부활과 관련된 기쁜 소식이라는 의미와 그 소식을 선포하는 행위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상에서 살펴본 진리와 동의 관계에 있는 지식과 지혜, 하느님의 뜻과 말씀, 의로움, 복음에 관한 조사를 통해서 발견된 점은 이 어휘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진리와 동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각기 고유한 측면을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먼저 진리는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속성을 강조한다면, 지식은 인간의 인식 행위와 관련되어 있고, 지혜는 인간이 활용할 수 있는 인식적 수단이라는 의미가 부각되고 있다. 하느님의 뜻은 하느님의 계획과 의지라는 것을 부각시켜 주고, 말씀은 그 진리가 전달되는 도구적 측면을 부각시켜 준다. 하느님의 의로움은 하느님이 왜 인간을 구원하는지를 밝혀주고, 복음은 이러한 진리가 부활과 관련된 기쁜 소식임을 부각시켜 준다.

IV. 신비, 계시와 진리 문제

바오로 서간에서 진리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확고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표현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절대성·영원성·보편성 등의 초월적 특징을 지닌다. 진리는 하느님에 근거한 것이기에 상대

적일 수 없고, 절대적인 특성을 지니며, 세상 창조 이전부터 종말 이후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구원 역사와 관련하여 하느님이 계획하신 바이기 때문에 영원성을 지닌다. 또한 그 계획은 모든 이들을 대상으로 하기에 보편성을 지닌다. 이렇게 본다면, 바오로 서간에서 진리의 절대성·영원성·보편성과 같은 특징들은 모두 진리가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진리는 신비라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인간의 인식 능력으로 온전히 파악할 수 없으며, 오직 선택받아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만 주어진다. 점에서 차별성을 지닌다. 또한 시간성 안에서 지속적으로 계시된다는 점에서 진리의 영원성과 절대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여겨진다. 이 장에서는 신비와 계시라는 표현으로 인해 생겨나는 이러한 진리의 차별성·시간성·상보성³³⁾에 관하여 살펴보고, 이것들과 진리의 보편성·영원성·절대성을 어떻게 더불어 이해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1. 신비와 진리의 보편성과 차별성

신비($\mu\upsilon\sigma\tau\acute{\eta}\rho\iota\omicron\upsilon$)는 아마도 ‘닫다’는 의미를 지닌 $\mu\acute{\upsilon}\epsilon\iota\nu$ 에서 나온 말로 보이며, 고대 그리스에서는 신비적 제의를 지칭하는 어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신비적 제의에 참여하는 이들은 반드시 제

33) 상대성이라는 표현은 진리가 상대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가급적 피하고자 한다. 진리는 차별성과 시간성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보일 수는 있지만, 그것은 진리 자체가 상대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느님의 계획이 시간적 특징과 차별적 특징을 지니며 역사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생겨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역사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드러나는 것들은 서로를 보완하며 절대적 진리를 드러내는데, 이 점은 성경 안에서도 잘 찾아볼 수 있다. 예를 들면 오경 안에도 종에 관한 법률이 세 번 언급되는데(참조: 탈출 21,2-22; 레위 25,39-55; 신명 15,12-18), 이 법률은 각기 다른 시기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것들로, 세부적인 면에서 서로 차이점을 보인다. J.-L. Ska, *Introduction to Reading the pentateuch*, Indiana: Eisenbrauns, 2006, 40-52 참조; 성경은 이와 같이 각기 다른 시기의 법률들도 빠지지 않고 담아 두는데, 이런 것들은 서로를 보완해 주며, 진리를 드러내어 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본고는 상대성이 아니라, 상보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의 공동체에 소속되기 위한 입문 과정을 거쳐야 하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는 이들은 제의에 참여할 수도, 그 제의에 관해 알 수도 없었다.³⁴⁾ 성경에서 신비는 대개 종말과 관련해서 감추어져 있는 하느님의 계획을 지칭하는데, 오직 하느님에게만 유보되어 있으며 선택된 이들만이 계시를 받음으로써 알 수 있는 것이었다.³⁵⁾ 바오로 역시 하느님께서서는 당신의 계획, 곧 신비를 창조 이전부터 오랫동안 감추어 두셨는데(참조: 로마 16,25; 1코린 2,7; 콜로 1,26),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웠던 선의에 따라 선택한 이들에게만 그 신비를 알려 주신다고 말한다. 이 신비는 선택받지 못한 이들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아 있으며(로마 11,25 참조), 이런 의미에서 신비는 보편성보다는 차별성이 강조되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또한 앞서 살펴보았던 표현들과 달리 감추어져 있음이라는 속성으로 인해 ‘감추어져 있지 않음’이라는 진리의 표현과도 의미적으로 충돌을 일으킨다. 이렇게 보면, 신비는 진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훼손하는 표현으로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신비가 알려진 이들에게 신비는 진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신비와 진리가 서로 충돌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또한 진리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두에게 선포되기 때문에 차별성을 지닌다고 말할 수도 없다. 바오로에게 있어서 진리의 수용은 각자에게 달려 있으며, 진리를 수용하지 않는 책임은 각자가 질 몫이다. 이런 차원에서 바오로 서간의 진리는 단순한 인식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 수용의 문제라고 말할 수 있다.

바오로는 하느님이 자신들에게는 이 신비를 알려주셨다고 말하는데(참조: 에페 1,9; 콜로 1,26), 바오로가 알게 된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것이다(참조: 에페 3,3-4; 콜로 1,27; 1티모 3,16).³⁶⁾ 그 내용을 종합하면,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과 부활, 승천의 모든 사건들이 바

34) G. Bornkamm, “μυστήριον, μύεω”, *TDNT* IV, 803-808 참조.

35) 같은 책, 814-815 참조.

36) 같은 책, 819 참조.

로 신비에 해당한다. 또한 예수가 다시 올 때 우리 모두가 부활하게 되리라는 것 또한 신비다(1코린 15,51 참조). 이처럼 신비는 진리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그 계획이 이루어지는 역사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2. 계시와 진리의 시간성과 영원성

앞서 살펴본 신비는 계시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드러난다. 이런 점에서 신비와 계시는 떼어 수 없는 관계에 놓여있다. 이 계시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것으로 바오로에게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바오로는 갈라 1,16에서 하느님이 예수를 이방 민족에게 선포할 수 있도록 자기 안에 예수를 계시해 주었다고 밝힌다.³⁷⁾ 이 외에도 바오로가 계시를 받았다고 전하는 내용들은 “하느님의 의로움”(로마 1,17),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사람들의 모든 불경과 불의에 대한 하느님의 진노”(로마 1,18), “믿음”(갈라 3,23), “하느님의 신비롭고 또 감추어져 있던 지혜”(1코린 2,7)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1코린 2,7.10 참조), “신비”(로마 16,25; 에페 3,3) 등이다. 이렇게 보면 계시 역시 창조 이전부터 계획되었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절대성·영원성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바오로는 이 신비들이 과거 세대에는 알려져 있지 않다가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과 예언자들에게 계시된 것이라고 말한다(에페 3,5 참조). 또한 이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37) 사도 9,15-16에서 바오로는 회심 사건 이후 하나니아스를 만나서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전해 듣는다. 하지만 갈라 1,16에서 바오로는 하느님이 직접 자신에게 예수를 다른 민족들에게 전할 수 있도록 계시해 주었다고 전한다. 그러면서 바오로는 자신이 이에 관해 다른 어떤 사람과도 상의하지 않았다고 밝힌다. 이렇게 보면, 사도행전의 회심 이야기는 설화적 요소가 담겨 있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정양모, 『바울로 친서 이야기』, 성서와함께, 2008², 24-25 참조; 실제로 사도 바오로는 자기 서간에서 이 회심 사건에 관해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는다. 오히려 바오로는 자신이 계시를 받았다고 말할 뿐이다.

사건을 통해 드러났지만, 계시는 공동체 안에서 사도들과 예언자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참조: 1코린 14,30; 필리 3,15).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도 장차 계시될 것인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계시될 영광(로마 8,18 참조)과 심판 날에 우리가 행한 모든 일(1코린 3,13 참조), 마지막 날에 드러날 무법자요 멸망의 아들(2테살 2,3.6.8 참조)에 관한 것이다. 이것들 가운데에는 아직 바오로에게도 감추어져 있는 신비가 있으며, 이 점은 때가 되었을 때 계시될 것이라는 점에서 계시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인 것처럼 여겨진다. 실제 바오로 스스로도 자신의 일상에서 계속 계시를 받고 있다고 여긴다. 예를 들면 바오로는 자신이 셋째 하늘까지 불려올라가는 신비로운 체험을 통하여 얻게 된 바를 계시라고 표현하기도 하고(2코린 12,1.7 참조), 자신이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고 말하기도 한다(갈라 2,2 참조). 이런 측면에서 계시는 시간성 속에서 진리를 드러내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다.³⁸⁾ 여기서 시간성은 진리가 시간적 제약을 받는 세계와 관련되어 역사적 과정을 통해 자신을 드러낸다는 것을 의미한다. 곧 진리는 우리가 한 번에 모두 깨달아 얻을 수 있는, 하나의 명사로 지시할 수 있는 어떤 내용이 아니라, 역사를 통하여 계속 밝혀지는 역동적인 의미의 표현이라는 말이다. 이런 진리는 분명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역사와 관련되어 있고, 또 그에 관한 계시는 영을 통해 주어진다는 점에서(에페 1,17 참조), 그

38) 시간이 창조 순간부터 시작되어, 종말에서 끝난다고 한다면, 그 이전과 이후는 영원과 관련되어 있고, 신비로운 하느님의 계획은 이로 인해 영원성의 특징을 지닌다고 말할 수 있다. 이 시간성과 영원성에 관한 관계에 관해서는 O. Cullmann, *Christ et le Temps*, Bibliothèque Théologique, Neuchâtel, Paris: Delachaux et Niestlé, 1957 참조; Cullmann은 시간의 중심이 예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있으며, 가톨릭교회가 현재라는 시간에 너무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비판하며 현재는 그 사건 이후 종말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현재의 의미도 바로 과거의 그 사건과 연결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하느님의 구원 계획에 관한 공적 계시가 끝이 났다고 보는 견해다. 하지만, 바오로는 여전히 계시에 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또 종말에 드러날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준다는 점에서 있어서 바오로는 역사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시는 하느님이 역사를 끝어가는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는 것 전체를 계시로 여기고 있음이 분명해 보인다.

절대성과 영원성을 잃지 않는다. 왜냐하면 바오로는 같은 성령이 이 모든 것을 한다고 보기 때문이다(1코린 12,4 참조).

3. 은총과 믿음을 통한 진리 수용

계시를 통하여 신비에 가려진 진리를 알게 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능력이나 노력, 이해력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덕분이다(참조: 로마 3,24; 4,16; 에페 2,8). 바오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총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당신 구원 계획을 실행해 옮기는 것을 말한다(참조: 에페 1,7; 2,5).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은 바오로가 선택된 것부터(갈라 1,16 참조), 그리스도인들을 부르는 모든 과정에 이르기까지(갈라 1,6 참조) 모든 것을 이루는 힘이다. 이렇게 볼 때, 바오로에게서 은총은 단 한 번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조 때부터 종말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안에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참조: 2코린 1,15; 4,15; 9,8).

바오로는 종종 이러한 은총을 진리와 동의어로 사용하곤 한다(참조: 2코린 1,12; 콜로 1,6). 또한 바오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의 지혜와 대조되는 것으로 보거나, 사람들이 배워야 할 지식으로 소개하기도 한다. 더 나아가 티토서에서는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의미하는 경우도 있다(티토 2,11 참조). 흥미롭게도 구약 성경은 은총(חסד, 참조: 창세 24,27.49; 탈출 34,6; 여호 2,14; 2사무 2,6; 15,20)을 진리를 의미하는 에메트와 병행해서 사용함으로써,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하나님의 은총으로’(은총), ‘반드시 이루어진다’(진리)는 것을 분명히 밝힌다.

여기서 또 한 가지 되짚어 보아야 할 점은 앞서 살펴본 대로 에메트, 곧 진리가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계획, 계약과 약속에 충실한 속성을 말하지만, 인간 편에서는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보여야 할 성실한 태도, 곧 믿음을 의미한다는 점이다(참조: 탈출 18,21; 1열왕 2,4; 3,6; 느헤 7,2 등). 실제 바오로 서간에서는 ‘믿음’(πίστις)을 ‘확실하다’

라는 의미로 사용하기도 한다(참조: 1티모 1,15; 2티모 2,11). 이런 어휘 활용이 가능한 이유는 에메트가 ‘확정하다, 지지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mu\sigma\varsigma$ 에서 나온 명사형으로, $\mu\sigma\varsigma$ 의 히필 동사형의 경우 ‘믿다’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본다면 히브리적 관점에서 믿음과 진리는 분명 동의 관계에 놓여 있는 표현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만 하느님의 진리가 하느님의 계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점을 강조하는 것이라면, 인간 편에서의 진리는 하느님이 참됨을 확고히 믿는 것과 그 믿음으로 하느님께 충실한 것을 의미한다.³⁹⁾ 바오로는 이 믿음마저 하느님의 은총에 따라 주어지는 것으로 여기는데, 믿음은 인간 이성의 눈으로 볼 때 이해 가능한 것을 넘어서는 것을 믿는 것, 그래서 다른 이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지기까지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1코린 1,18-31 참조).

4. 진리의 절대성과 표현의 상보성

지금까지 진리는 신비, 은총과 믿음이라는 개념으로 인해 시간성·차별성을 지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느님의 진리(충실함), 곧 하느님의 구원 계획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보편성·영원성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런 진리관을 지니고 있던 바오로가 실제 복음 선포 현장에서는 진리에 대해 어떤 태도를 취하는지에 관해 살펴보면서 진리의 절대성과 상보성에 관한 문제를 다루어 보자.

바오로는 전교 활동 가운데 자신과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이들을 만나는데(갈라 2,11-3,5 참조), 그들은 율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들이었다. 그들은 아마도 예루살렘의 야고보와 관련된 사람들로 여겨

39) 믿음이 진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닌다면, 믿는 바는 하느님의 계획, 뜻에 충실함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믿음은 단순히 심리적 차원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에 충실한 실천적 태도도 함께 있어야 한다고 말할 수 있다. A. Thiselton, 앞의 책, 886 참조; 바오로가 믿음의 반대어로 사용하는 것은 믿음에 따른 실천이 아니라, 율법에 따른 행위다(로마 3,27-31 참조).

지는데(갈라 2,12 참조), 그들의 가르침은 바오로가 계시 받았다고 주장하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바오로는 갈라티아 사람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에서 돌아설 것을 권한다. 이런 분위기는 필리피 교회에서도 다르지 않았다(필리 1,15-18 참조). 이렇게 보면, 그들은 분명 바오로와 다른 진리를 계시 받은 이들이라고 볼 수 있다.

그들을 대하는 바오로의 태도는 매우 단호했다. 하지만 바오로는 그들이 자신과 다른 복음을 전한다 하더라도, 또 그들의 태도가 가식이든 진실이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는 유연한 태도를 견지한다(필리 1,18 참조). 바오로가 보기에, 하느님의 성령에 힘입지 않은 이들은 아무도 예수를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기 때문이다(1코린 12,3 참조). 바오로에게 있어서는 이 점이 진리관의 핵심이다. 바오로에게서 진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와 직결되어 있으며, 진리의 절대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련성 안에서 이야기될 수 있다. 그래서 바오로는 무엇이든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고, 그리스도에 모든 초점을 맞춘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기준이기 때문이다.⁴⁰⁾

그런데 바오로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진리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면서도 다양한 표현을 사용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대상에 따라 접근하는 방법에서도 다양한 태도를 취한다. 유다인에게는 유다인처럼, 그리스인에게는 그리스인처럼, 약한 이들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대한 것이다. 바오로는 이 모든 것이 몇 사람이라도 진리를 받아들여 보편적으로 마련된 구원을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였다고 전한다. 그러면서 바오로는 복음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선호하는 모든

40) 사실, 성경에서 진리를 이야기할 때에는 성경 책 자체가 참된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T. Okure, “What is Truth?”, *Anglican Theological Review* 93, 2011, 405-422 참조; 『가톨릭 교회 교리서』 101-104항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유일한 말씀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성경의 진리에 관해 이야기할 때에는 예수의 인격에 관해 이야기하는 것과 같다.

것을 버릴 수 있다고 말한다(1코린 9,19-23 참조). 물론 그렇다고 해서 그리스도를 버리면서까지 모든 것을 용납해야 한다고 여기지는 않는다. 모든 것은 복음 선포를 위해서였다(1코린 9,23 참조).

이런 바오로의 입장은 바오로가 바리사이들이 즐겨 활용하던 해석 방법인 ‘칼 와호메르’(참조: 로마 5,17; 갈라 3,21)와 ‘계제라 샤와’(참조: 로마 4,1-12; 갈라 3,6-14)뿐만 아니라,⁴¹⁾ 에세네파의 전통적인 해석 방법인 ‘페서림’을 활용하기도 하며(로마 9,19-33 참조),⁴²⁾ 어떤 경우에는 합리적인 이성을 활용한다는 점(참조: 1코린 7,12; 10,15; 11,13)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오로는 진리라는 표현이나 개념 자체에 매여 있기보다, 사람들의 처지와 상황을 고려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선포함으로써, 모두가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준다. 이러한 바오로의 태도는 다른 것과 결코 섞을 수 없는 절대적 진리가 대상에 따라 표현되고 선포될 때에는 상보적일 수 있음을 보여준다.⁴³⁾ 이런 상보성은 바오

- 41) ‘칼 와호메르’는 더 쉬운 것에서 더 어려운 것, 혹은 그 반대로 추론을 하는 규칙을 말하며, ‘계제라 샤와’는 유사한 구절을 서로 연결하여 해석하는 규칙으로 힐렐의 일곱 가지 성경 해석 규칙 가운데 가장 오래된 두 가지 규칙이다. 이 점에 관하여는 엄철호, “사도 바오로의 칼 와호메르와 계제라 샤와”, 『신앙과 삶』 22, 2010, 38-65 참조.
- 42) 쿰란 공동체의 성경 해석 방법을 ‘페서림’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구약 성경 가운데 특별히 예언서와 성문서의 구절들이 현재 공동체의 문제를 미리 알려주던 것으로 해석하는 해석방법을 이야기한다. 다소 종말론적인 해석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참조: L.H. Shiffmann, *Reclaiming the Dead Sea Scrolls: Their True Meaning for Judaism and Christianity*, New York: Doubleday, 1995, 211; 엄철호, “쿰란 공동체와 바오로”, 84-85; 바리사이파와 사두가이파는 율법서를 기반으로 모든 것을 해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바리사이파였던 바오로가 예언서와 성문서의 구절들을 활용하는 점에서 바오로의 독특함을 발견할 수 있다.
- 43) 바오로 서간만 보더라도 테살로니카 1,2서는 주님의 재림에 관하여 세부적인 면에서 차이가 난다(참조: 1테살 4,13-18; 2테살 2,1-12). 바오로 친서나 아니냐의 문제로 접근할 수도 있지만, 2테살 2,1-12가 1테살 4,13-18을 보완하기 위한 것임은 분명해 보인다. K. Donfried, *Paul, Thessalonica, and Early Christianity*, New York: Eerdmans, 2002, 49-67 참조; 이는 바오로가 처음 말한 것을 글자 그대로 진리라며 고집하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 맞게끔 수정 보완하고 있음이 발견된다. 이는 진리가 절대적이지 않아서가 아니라, 인간의 인식 능력과 언어 표현의 한계 때문이다. 이러한 점은 유대인들의 미드라쉬 전통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난다. 미드라쉬는 성경 말씀이 변화된 시대 상황 안에서 끊임없이 재생시키기 위한 것으로, 각주 33에서

로의 진리, 곧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V. 나가는 말

이상으로 바오로가 진리를 어떤 의미로 사용하는지, 무엇을 두고 진리라고 여기며, 그것을 왜 진리라고 여기는지, 또 그 진리를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에 관해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오로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관련되어 있으며, 지식·지혜·(하나님의) 뜻·말씀·복음·의로움은 진리와 동의 관계에 있는 어휘들로 진리의 의미를 다른 각도에서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둘째, 진리는 그것이 지시하는 바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점에 초점이 맞추어진 표현이다. 셋째, 진리는 창조 이전부터 종말 이후와 관련된 모든 이를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과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보편성과 영원성을 지닌다. 넷째, 신비·계시·은총·믿음은 차별성과 시간성을 드러내기 때문에 진리의 보편성, 영원성이 훼손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진리가 차별적이고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말이 아니라 인간에게 파악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특성일 뿐이다. 곧 인간이 진리를 파악하는 작업은 언제나 차별성과 시간성을 지닐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섯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진리는 당신의 의로움으로 인해 약속에 충실한 것을 의미한다면, 인간 편에서 진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그리고 그 믿음에 충실한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바오로 진리관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며, 바오로에게

언급한 것처럼 오경 안에 세 번에 걸쳐 언급되는 종에 관한 법률도 일종의 미드라쉬의 결과로 여겨진다. 귄터 스텐베르거, 『미드라쉬 입문: 라베들은 성경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유다·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II-2, 이수민 역, 바오로딸, 2008, 19-21 참조; 이로 인해 생겨나는 다양함은 서로 상보적으로 작용하여, 절대적 진리를 더욱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이는 절대적 원칙이다. 하지만 복음 선포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진 이들에게까지 유연한 태도를 취한다. 이로 인해 생겨나는 진리에 대한 다양한 표현과 해석 등은 서로 상보적 역할을 하며, 이는 절대적 진리를 좀 더 풍성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지금까지 언급한 진리에 대한 바오로의 태도는 진리 자체가 없다고 여기는 회의주의자의 태도도, 모든 것이 진리일 수 있다고 여기는 상대주의적 태도도, 자신과 다른 방식으로 진리를 표현하는 이들을 공격하는 편협한 문자주의적 태도도 아니다. 자신의 진리를 오히려 고수하면서도, 진리에 접근하는 방식이나 선포 방식에 있어서는 유연한 태도를 취하는 한 차원 높은 태도다. 바오로가 진리에 대해 갖는 이런 태도는 다양한 종교들이 함께 살아가는 한국 사회 안에서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야 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가르침을 준다. 곧 아무리 다원주의 사회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자신이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확고한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 그리고 눈앞의 미래는 언제나 신비 속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진리에 관해 새롭게 해석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해석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생각을 가지는 이들, 다른 진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다면, 유연한 태도로 그들과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종말이 오기 전까지는 하느님의 모든 계획을 확실히 알고 있다는 태도는 버려야 한다. 우리의 미래는 여전히 하느님의 계획안에서 신비에 가려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진리 자체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걸으면서, 항상 진리에 마음을 열고, 앞으로 이루어질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물어야 한다. 그리고 성령께 의탁하며 매일 같이 진리를 추구하고 살아야 한다. 이런 과정을 걷는 이들만이 진정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종말에 가서 참으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깨달아 알게 될 것이다.*

* 투 고 일: 2015. 10. 5
수 정 일: 2015. 11. 24

심 사 일: 2015. 11. 23
계재확정일: 2015. 12. 7

참 고 문 헌

- 『가톨릭 교회 교리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2003.
- 김영남, 『로마서』, 성서와함께 총서 신약 4, 성서와함께, 2014.
- 김형호, “진리의 객관화를 거부한 예수”, 『기독교 사상』 20, 1976, 44-48.
- 니터, P.F., 『오직 예수 이름으로만?』, 변선환 역, 한국신학연구소, 1986.
- 박병준, “‘진리’ 이해의 문제에 대한 오늘날의 해석학적 흐름”, 『神學展望』 187, 2014, 2-35.
- 바디우, 알랭, 『사도 바울: ‘제국’에 맞서는 보편주의 윤리를 찾아서』, 현성환 역, 새물결, 2008.
- 스텨뎀베르거, 귄터, 『미드라쉬 입문: 라삌들은 성경을 어떻게 다루었는가?』, 유다·그리스도교 고전 입문 총서 III-2, 이수민 역, 바오로딸, 2008.
- 심상태, “그리스도 진리의 보편성과 역사성”, 『가톨릭 신학과 사상』 1, 1989, 22-55.
- _____, 『익명의 그리스도인: 칼 라너 학설의 비판적 연구』, 성바오로출판사, 1985.
- 염철호, “사도 바오로의 칼 와호메르와 게제라 샤와”, 『신앙과 삶』 22, 2010, 38-65.
- _____, “쿰란 공동체와 바오로”, 『신앙과 삶』 20, 2009, 55-94.
- 이길용, “종교연구에 있어서 진리의 문제: 종교학과 종교철학”, 『기독교 사상』 557, 2005, 228-239.
- 이영현, “요한복음서의 진리 개념에 대한 성서적 고찰”, 『神學展望』 146, 2004, 2-21.
- 이정석, “가톨릭교회의 성서 해석과 진리 이해”, 『神學展望』 187, 2014, 36-87.
- 정양모, 『바울로 친서 이야기』, 성서와함께, 2008².
- 정재현, “진리와 해석: 신앙의 진정성을 향하여”, 『조직신학논총』 3, 1998, 88-102.
- 하이데거, 마르틴, 『존재론: 현사실성의 해석학』, 이기상·김재철 역, 서광사, 2002.
- Barbiero, G., *Dio di misericordia e di grazia: La rivelazione del volto di Dio in Esodo 32-34*, portalupi editore, 2002.
- Beaude, P., “L’Evangile de paul”, *Cahiers Evangile: Qu’est-ce que l’évangile?* 96, Éditions du Cerf, 1996, 11-26.

- Bornkamm, G., “μυστήριον, μύεω”, *TDNT* IV, eds. Kittel, G. / Frierich, G., trans. Bromiley, G.W., Grand Rapids, MI: Eerdmans, 1967, 802-828.
- Brown, P., “Religion and Truth”, *Perspective* 13, 1972, 200-212.
- Bultmann, R., “ἀλήθεια, ἀληθής, ἀληθινός, ἀληθείω”, *TDNT* I, eds. Kittel, G. / Frierich, G., trans. Bromiley, G.W., Grand Rapids, MI: Eerdmans, 1964, 232-251.
- _____, “γινώσκω, γνώσις, ἐπιγινώσκω, ἐπίγνωσις, καταγινώσκω, ἀκατάγνωστος, προγινώσκω, πρόγνωσις, συγγνώμη, γνώμη, γνωρίζω, γνωστός”, *TDNT* I, eds. Kittel, G. / Frierich, G., trans. Bromiley, G.W., Grand Rapids, MI: Eerdmans, 1964, 689-719.
- Ciholas, P., “Knowledge and Faith: Pauline Platonisms and the Spiritualization of Reality”, *Perspectives in Religious Studies* 3, 1976, 188-201.
- Cullmann, O., *Christ et le Temps*, Bibliothèque Théologique, Neuchâtel, Paris: Delachaux et Niestlé, 1957.
- de Saussure, F., *Cours de linguistique générale: Édition critique préparée par Tullio de Mauro*, Éditions Payot & Rivages, 1995⁴.
- Donfried, K., *Paul, Thessalonica, and Early Christianity*, New York: Eerdmans, 2002.
- Egger, W. / Wick, P., *Methodenlehre zum Neuen Testament*, Freiburg: Herder, 2011⁶.
- Evans, V. / Green, M., *Cognitive Linguistics: An Introduction*, Edinburgh: Edinburgh University Press, 2006.
- Fitzmyer, J., *Romans*, The Anchor Bible 33, New York: Doubleday, 1993.
- Gloy, K., “하나인 진리와 다수의 진리 이론들”, 『가톨릭 대학 논문집』 13, 신교선 역, 1987, 179-203.
- Jewett, R., “Following the Argument of Romans”, *Word & World* 6, 1986, 382-389.
- Kennedy, G., *New Testament Interpretation through Rhetorical Criticism*, Chapel Hill: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Press, 1984.
- Murphy-O'Connor, J., *Paul the Letter-Writer: His World, His Options, His Skills*, Collegeville, Minnesota: The Liturgical Press, 1995.
- Okure, T., “What is Truth?”, *Anglican Theological Review* 93, 2011, 405-422.
- Schrenk, G., “θέλω, θέλημα, θέλησις”, *TDNT* III, eds. Kittel, G. / Frierich, G., trans. Bromiley, G.W., Grand Rapids, MI: Eerdmans, 1964, 482-491.

- G., trans. Bromiley, G.W., Grand Rapids, MI: Eerdmans, 1966, 44-62.
- Shiffmann, L.H., *Reclaiming the Dead Sea Scrolls: Their True Meaning for Judaism and Christianity*, New York: Doubleday, 1995.
- Ska, J.-L., *Introduction to Reading the pentateuch*, Indiana: Eisenbrauns, 2006.
- Thiselton, A., "Truth", *The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New Testament Theology*, vol. 3, ed. Brown, C., Carlisle: Paternoster, 1992, 874-902.
- Wilckens, U., "σοφία, σοφός, σοφίζω", *TDNT* VII, eds. Kittel, G. / Frierich, G., trans. Bromiley, G.W., Grand Rapids, MI: Eerdmans, 1979, 465-528.
- Zenger, E., *Einleitung in das Alte Testament*, Stuttgart: Kohlhammer, 1995.

□ Abstract □

A Semantic Analysis on the Revealed Truth for Paul

Youm, Cheol Ho

In the Pauline letters truth denotes the divine plan of salvation through Jesus Christ. Here, various synonyms of truth are found. For example, we see words such as knowledge, wisdom, divine will, word, gospel and righteousness. All these words refer to the divine plan and salvific history and each one highlights one particular aspect. Truth highlights that the divine plan comes true in history. Truth includes the divine plan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of time and is concerned with the fate of all human beings and the whole world.

Truth is said to be universal and eternal. However, truth is concealed as a mystery and is revealed step by step throughout history by divine revelation to all those chosen who believe that Jesus is Christ and the son of God. Truth, then, seems discriminating and temporal. Damage could be done to its universality and permanence. However, it could be said that its discriminating and temporal characteristics are not its own characteristics but appear in the process of conceptualizing the truth. In addition, the Pauline truth is influenced by a Jewish word ‘emet’, which means both the royalty of God to his own plan and the faithfulness of human beings to God’s plan. Finally, the core of truth in Paul is Jesus Christ who is the absolute principle of truth. Paul has a flexible attitude towards other viewpoints as long as they adhere to the belief that Jesus is Lord and furthers the proclamation of the gospel. His other expressions and interpretations of truth function in a

complementary way and help us understand truth more abundantly.

* **Key Words:** Truth, Revelation, Belief, Righteousness, Paul

“바오로에게 계시된 진리에 관한 의미론적 분석”에 대한 논평

임 속 희

(대전가톨릭대학교 혼인과가정대학신학원)

중요한 주제에 대해 진지하게 연구해 주신 염철호 신부님께 감사드리면서 이 발표문의 의의, 성찰, 질문을 중심으로 말하고자 한다.

1. 의의

첫째, 이 논문의 의의는 좋은 질문과 주제에 있다. 신학연구의 출발점은 좋은 질문을 하는 것이다. 보스톤 대학의 종교교육학자인 토마스 그룹이 올해 5월 한국에 왔을 때 우리에게 한 마지막 부탁이 항상 떠오른다. “여러분, 위대한 질문을 하십시오.” 발표자는 진리라는 주제에 대해 우리가 평소 해왔던 것과는 다른 각도로 새롭게 질문한다. “진리라는 개념 자체보다는 바오로가 무엇을 두고 진리라고 하는가? 무엇이 진리라는 속성을 지닌다고 생각하는가?”를 질문한다. 바오로 서간은 공관 복음보다 먼저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 연구는 초대교회의 한 그리스도인이 무엇을 두고 진리라고 여겼는지에 대한 가장 초기의 중요한 증언이 된다.

둘째, 바오로 서간에는 진리라는 주제가 현대 그리스도교 교리처럼 논리정연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으며, 여기 저기에서 분산되어 있어 애매하게 보일 수도 있는데 발표자는 단순히 성경의 사실들(facts),

곧 서간에 나오는 ‘바오로의 중요한 용어’를 통해서 진리를 설명한다. 진리를 “하느님의 신비스런 구원 계획과 그것이 이루어지는 구원 역사를 지칭한다”라고 소개하고 진리와 관련된 동의어들을 바오로의 문맥 안에서 살펴보는 의미론적 접근을 통해서 ‘진리’를 중심으로 일목요연하게 ‘바오로 신학’을 체계적으로 소개한다.

셋째, 바오로의 진리관이 구약 성경의 진리 개념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 여기에서 출발하는데 하느님의 성실함과 그에 대한 응답으로서 인간의 성실함, 진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런 접근과 진리 개념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느님 말씀을 실천과 연결하는 히브리 유산이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한다. 특히 하느님과 관련하여 유대인들이 고려해야 하는 것은 진리의 본질이 자신의 삶 안에서 결정을 내려야 하는 순간의 기반을 이룬다는 것이다. 하느님의 성실함을 본받는 삶을 사는 선택을 할 것인가? 그것을 외면하는 선택을 할 것인가? 하느님이 성실하신 분이라는 진리는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실행해야 할 진리를 알려준다.

넷째, 발표자는 진리의 절대성과 상보성의 관계를 신비와 은총, 계시라는 용어를 통해 설명한다. 이런 접근은 해석자의 편견에 따른 객관적인 진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포스트 모던 시대에, 특히 다종교 문화 안에서 살아가는 한국인인 우리들이 어떤 태도로 진리를 전달해야 하는지를 성찰하게 한다. 발표자는 진리이신 하느님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하게 성령 안에서 진리의 탐구자로서 대화하는 여정을 걸어가자고 초대한다.

2. 성찰

발표자는 바오로에게 계시된 진리의 의미론적 분석을 통해 바오로의 중요한 신학 용어들을 소개했다. 사실 바오로의 이 용어들은 그가 살았던 삶, ‘체험, 사실’에 바탕을 둔 용어들이다. 발표자는

바오로가 “무엇을 두고 진리라고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으로 발표문을 시작했는데 발표문을 읽으면서 “바오로 자신은 실제로 진리를 어떻게 살았는가? 이런 용어들을 통해 바오로 자신의 체험을 들여다볼 수 있지 않을까?”를 질문하게 되었다. 바오로는 서간 안에서 자신의 개인적인 체험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지만 이 진리에 관한 용어들을 통해서 진리 탐구자로서 바오로의 모습을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다. 왜냐하면 바오로의 가르침은 그의 삶의 체험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진리에 대한 가르침도 마찬가지로 나누어 본다.

1) 진리와 삶의 과정에 대하여

바오로는 자신의 삶 안에서 어떻게 진리 인식의 과정, 자기 삶의 과정을 거쳤을까? 다마스쿠스 체험에서 시작된 진리에 대한 인식은 아마도 그의 생애 동안 발전했을 것이다. 다마스쿠스 계시에 바탕을 두고, 그의 선교 활동의 선포(설교와 서간을 통해서), 그리고 개인적인 성찰을 통해서, 더욱 궁극적으로는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인식이 발전했을 것이다.

인간의 인식 과정을 연구한 로너간(B. Lonergan)의 이론에 따르면, 바오로도 우리와 똑같이 단순히 책상머리에서가 아니라 실험하고, 도전하고, 실천해보면서 자신의 삶에 적정화(appropriation)하는 과정을 통해서 진리를 심화했을 것이다.¹⁾ 바오로는 필리피서에서 자신은 “어떠한 처지에서도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필리 4,11)라고 말하는데, 한 번 머리로써 안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끊임없이 배웠다는 것을 의미한다. 내가 아는 것, 진리에 대해 알고 성찰하는 것은 공동체에 헌신하는 만큼 성장한다. 바오로가 겪었던 평생 고통과 장애, 해결해야 할 도전이 많을수록 진리에 대한 지식도 성장했을 것이다.

1) 조지프 플래너건, 『자기 삶의 탐구: 로너간 사상에 대한 하나의 시도』, 김재영·이숙희 역, 서광사, 2014 참조.

2) 인간의 지혜와 십자가의 지혜에 관하여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하느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우리 시대의 흐름과는 역행하는 듯이 보이는 하느님의 지혜가 어떻게 인간의 유산이 될 수 있을까? 발표자는 진리와 동의 관계에 있는 용어들의 용례를 설명하면서 먼저 ‘지식’과 ‘지혜’를 소개한다. 바오로가 선포한 지혜는 철학자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느님의 지혜, 십자가의 지혜이다. 이것은 이성의 자연적인 힘으로 얻는 지혜가 아니라 신앙의 선물이다. 바오로 대가인 로마노 펜나(Romano Penna) 신부님이 로마서 첫 강의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끔 떠오른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소명에는 사제직, 예언직, 왕직 세 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저는 여기에 네 번째 소명을 덧붙이고 싶은데 그것은 ‘현인, 그리스도교의 지혜를 간직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바오로 서간은 우리에게 그런 현인이 되도록 교육시킵니다.”

바오로가 지혜라는 표현을 사용할 때 대개 세속적인 의미, 곧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하는 인간의 지혜를 지칭하지만 이것을 설명할 때는 이와 대조되는 ‘십자가의 지혜’에 대해 설명을 하면 더욱 보완이 될 것 같다. 바오로는 우리에게 그리스도교적 지혜, 곧 세상의 지혜를 따르지 말고 십자가의 지혜를 따르는 현인이 되라고 가르친다. 바오로에게 가장 최고의 지식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에 대한 앎이었다. 바오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본받으면서, 그분처럼 고통과 시험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그분의 모범을 따르면서, 말하자면 우리 편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간 키레네 사람의 역할을 하면서 그런 ‘십자가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친다. 바오로에 따르면 십자가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 안에서 머무는 사람이 ‘그리스도교적 현인’일 것이다.

3) 바오로 ‘신비’ 개념과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관하여

바오로의 ‘신비’ 개념은 그리스도인의 진리 탐구와 실천과 어떤 관계가 있을까? 발표자는 “IV. 신비, 계시와 진리 문제”에서 진리

의 절대성과 상보성이라는 주제를 다루면서 진리와 신비의 관계에 대해 정의한다. “신비는 진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훼손하는 표현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신비가 알려진 이들에게는 진리와 동일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신비와 진리가 서로 충돌된다고 말할 수 없고 모두에게 선포되므로 차별성을 지니고 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진리의 수용은 각자에게 달려있다. 서간의 진리는 단순한 인식적 문제가 아니라 신앙적 수용의 문제이다.” 이 결론은 미래의 감추어진 차원보다는 현재의 그리스도인의 소명에 더욱 초점을 맞추어 바오로의 ‘신비’를 성찰하게 한다.

바오로는 그의 서간 13군데에서(참조: 로마 16,25; 1코린 2,1.7; 콜로 1,26.27; 2,2; 4,3; 에페 1,9; 3,3.4.9; 5,32; 6,19; 여기에 묵시 10,7도 덧붙일 수 있다) 신비의 용례를 여러 가지로 설명한다. 그 용례를 종합해서 요약하면 ‘μυστήριον’이라는 용어는 자주 하느님의 계획 안에 감추어진 미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여기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느님의 결정적인 행위를 가리킨다.²⁾ 로마서에서 ‘μυστήριον’이라는 말이 로마 11,25; 16,25에 두 차례 나오는데 16,25의 용법은 로마 11,25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드러난 하느님 은총의 충만한 자비에 대한 묘사와 연결된다. 사실상, 하느님 자비의 이 신비는 그리스도인들을 자비의 사도직, 현재 이 자리에서 그들이 해야 할 소명으로 초대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하고 일해야 하는 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의 신비이다(참조: 1코린 2,6.7.10; 콜로 1,26-27; 2,2; 에페 1,9; 3,3-4.9).

결국 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모든 이의 종이 되게 한다(필리 2,6-11 참조).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것처럼(참조: 로마 5,6-11; 3,25-26), 바오로 자신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참조: 로마 9,3; 11,13-14; 1,9; 15,16), 모든 이들을 위해 자신을 주라

2) Romano Penna, *Il “mysterion” paolino: Traiettorie e costituzione*, Brescia: Paideia, 1978 참조.

는 초대이다(참조: 로마 11,31; 12,1). 그 ‘신비’를 실현하기 위해서 그것을 전달하는 목소리가 필요한데, 사실 바오로는 자신의 사도 직분을 ‘그리스도의 시종이자 하느님의 신비를 맡은 관리인’(1코린 4,1 참조)의 역할로 요약한다. 바오로는 거룩한 신비들을 받을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나누어주는 사람이자 책임있는 중재자로 소개한다. 바오로에게 ‘신비’는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는 현재의 삶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책임감, 해방과 구원을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요구한다.

3. 질문

1)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성경 인물의 삶의 이야기에서 자기의 삶을 건설하는 이야기를 발견한다. 진리, 그리고 진리에 관한 어휘들, 신비와 계시라는 개념들을 통합해서 살펴볼 때 ‘성령 안에서 진리 탐구자’를 지향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바오로는 어떤 면에서 좋은 모델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2) 이 학술발표회의 주제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이다. 세속화, 그리스도 없는 인문학이 세상 사람들에게 강한 매력을 주는 이 시대에, 우리가 세상에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해서, 세상에 생명을 전하고, 자유와 해방을 주기 위해서 바오로의 진리관에서 어떤 유익한 가르침을 얻을 수 있을까?*

논평에 대한 답변

엄 철 호

(신부, 부산가톨릭대학교 성서학 교수)

꼼꼼하게 발표문을 읽고 논평해 주신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 논평자의 논평으로 발표문의 내용이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었고, 필자 나름대로도 새로운 시각을 얻게 되어 앞으로의 연구에 도움이 되리라 여겨진다. 논평을 읽으면서 발표문에서 미처 정리하지 못했던 바를 나름대로 정리하게 되었다. 여기서는 이 점들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한 뒤, 질문한 점들에 관해 답변을 하고자 한다.

첫째, 논평자는 바오로의 진리관이 하느님 말씀을 실천과 연결하는 히브리 유산과 밀접하게 연결되며, 이러한 유산이 그리스도교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점임을 잘 지적해 주었다. 그러면서 “하느님이 성실하신 분이라는 진리는 그리스도인이 살면서 실행해야 할 진리를 알려준다”라고 논평해 주었다. 이 점에 관해 동의하면서, 바오로의 ‘믿음’이라는 어휘가 진리와 동의 관계에 놓여 있음을 다시 강조하고자 한다. 발표문에서도 밝히고 있듯이 인간 편에서의 에메트, 곧 믿음은 진리와 동의어로, 하느님 계명에 성실한 것, 곧 실천적 믿음을 의미한다. 바오로는 로마 10,10에서 믿음을 강조하며, “마음으로 믿어 의로움을 얻고,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습니다”라고 말함으로써 마치 실천적 믿음을 배제하는 듯 보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는 율법과 할례를 반대하며 믿음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지, 실천적 믿음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바오로는 로마 12,1-15,13에서 믿음에 대한 실천적 규정들을 제시하고 있

을 뿐만 아니라, 코린토 1서에서는 전체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점을 특별히 강조한다.

둘째, 논평자께서는 “진리이신 하느님이 역동적이기 때문에 우리도 겸손하게 성령 안에서 진리의 탐구자로서 대화하는 여정을 걸어가야 한다”는 표현을 통해 본고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분명하게 드러내어 주었다. 성경의 하느님은 역사의 하느님이시며, 창조 이래로 종말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으로 역사를 끌어가시는 분이다. 역사는 하느님이 정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게 되어 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미래가 여전히 신비로 감추어져 있으므로 우리는 여전히 겸손되게 성령 안에서 진리를 탐구해 나가야 한다. 물론 그리스도교적 종말론이 말하듯이 그 방향에 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온전히 보여주시고,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곧 그분의 약속이 참된 진리라는 것을 선포하고, 그 진리가 드러나고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그 역사에 동참함으로써 역사를 이끌어 가야할 임무를 지니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이처럼 진리를 탐구한다는 것은 바꾸어 이야기하면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삶의 현장 안에서 구체적으로 찾아 실천으로 옮기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논평자는 로너간의 견해를 바탕으로 바오로의 진리 탐구 과정이 끊임없는 과정이었음을 밝히고 있다. 바오로는 단 한 번 진리를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삶을 통해 배워나갔다는 말이다. 이러한 점은 바오로 서간에서 매우 분명하게 드러난다. 바오로 최초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테살로니카 1서에서 다루는 내용과 후기의 편지라고 할 수 있는 로마서의 내용이 기본적 바탕에서는 차이가 없지만, 신학적인 측면에서 다소간의 발전이 있었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테살로니카 1서의 경우에는 종말에 대한 긴장과 재림에 대한 기대가 가득한 반면, 로마서에는 그러한 긴장이 그렇게 크게 다루어지지 않는다는 점만 보더라도 그러하다. 바오로 역시 활동 가운데 자신의 신학적 발전을 이룬 것으로 여겨

지는 대목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바오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를 더욱 깊이 깨달아가는 과정이지, 진리 자체가 변하거나 발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진리 자체가 발전한다는 생각은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변한다는 말이 되며, 이는 결국 우리를 상대주의에 빠트릴 것이다.

넷째, 논평자는 “하느님 자비의 이 신비는 그리스도인들을 자비의 사도직, 현재 이 자리에서 그들이 해야 할 소명으로 초대한다. 그리스도인들이 성장해야 하고 일해야 하는 이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느님 아버지의 자비의 신비이다”라고 하였다. 하느님의 구원 역사는 하느님 자비의 역사이면서 동시에 인간과 관련된 역사이다. 이 점은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통해서도 잘 알 수 있다. 인간이 끌여가는 역사, 죄로 점철된 역사를 하느님께서서는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당신의 역사로 만들어 가시는 모습을 매번 확인하게 된다. 이런 차원에서 역사는 하느님의 역사이며 동시에 인류의 역사이다. 여기서 인류의 역사는 하느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는 또 다른 하나의 성사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까지 논평자가 말한 점들을 정리하다 보니, 논평자가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도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듯하다. 먼저, 논평자는 성령 안에서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바오로가 어떤 면에서 좋은 모델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지에 관해 질문해주었다. 이에 바오로가 끊임없이 진리를 추구하는 모습 자체가 진리를 탐구하는 우리에게 훌륭한 모델이 된다고 생각한다. 바오로는 하느님의 진리를 계시를 통해 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스스로 그 진리를 모조리 알고 있다고 여기지 않는다. 바오로는 스스로가 끊임없이 달릴 때까지 달려야 하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있으며(필리 3,12-21 참조), 자기 안에 여전히 죄스러움이 가득함을 고백한다(로마 7,7-25 참조). 이런 자세는 참으로 중요하다. 구약의 지혜문학도 이야기하듯이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을 두려워하고, 끊임없이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이다. 오늘날

성령 안에서 진리를 탐구하는 이는 언제나 성령의 이끄심에 마음을 열고, 그분께서 알려주시는 참된 길을 묵상하며, 매일 충실하게 하느님의 뜻을 찾는 이라고 할 수 있으며, 바오로는 이런 측면에서 진리 탐구를 위한 훌륭한 모범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논평자는 세속화, 그리스도 없는 인문학이 매력적인 이 세상에 바오로의 진리관이 어떤 유익한 가르침을 주는지에 관해 질문해 주었다. 바오로의 진리는 지식적이고 인식적 차원의 진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구체적으로 구현해내야 하는 실천적 진리이다. 이 진리는 역사를 통하여, 구체적 삶을 통하여 증언되고 증거되어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그리스도교적 진리는 인류 역사를 통하여, 또 우리들의 삶을 통하여 증언될 때 비로소 참되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하지만 종종 그리스도교적 진리가 세상에서 외면당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이것은 아마도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의 결여, 믿는 바를 실천으로 옮기려는 의지의 결여로 인해 믿는 바와 삶이 괴리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가 믿는 복음 진리는 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증언된 것들이다. 바오로 역시 자신이 믿는 진리를 위해 목숨으로 증언하였다. 이런 점에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자신이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그 믿음 안에서 진리를 구체적 현장에서 증언하고 실천에 옮기는 것이다. 진정 내가 믿는 진리를 실천하지 못할 때 우리 스스로가 자신이 믿는 진리를 상대화시키게 된다. 결국, 그리스도교적 진리가 훼손되는 것은 세속화된 세상 때문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금 우리가 믿고 있는 진리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것에 대한 삶을 통한 증언이 더욱 요구되는 때가 아닌가 생각된다. 다시 한 번 부족한 발표문을 읽고 귀한 논평을 해주신 논평자에게 감사드린다.*